

전국 근로감독관과의 오찬간담회

대화와 타협은 원칙의 틀 안에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이 곧 원칙이 아닙니다. 파업을 종결하는 것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보통은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아침에 서서 인사드렸으니까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격려말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한쪽은 대화와 타협을 한쪽에서는 원칙과 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현장에 가 보면 무엇이 원칙인가를 단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원칙 틀 안에서 추상적이고 폭이 넓습니다. 타협은 밀고 당기기 마련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매듭짓는 것이 타협입니다. 어제 조흥은행 문제는 불법 타협이므로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다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상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흥은행 문제는 적당한 가격에 주식을 팔고 공적자금을 회수해서 금융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의미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국민들의 신체,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전쟁과 같은 혼란이 아닌 이상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스에 걸렸다는 의심만으로 연행해야 됩니까. 사스는 법적 전염병이 아닙니다. 연행하는 게 합당한지 한마디로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것입니다. 조폭처럼 조직화된 폭력이라면 원칙을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폭력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으로 대화나 타협만 하거나 원칙대로 공권력 투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협상도 하지 않고 공권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이 원칙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행정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안 간다, 간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 공무원을 위한 휴일 보장에 대해서는 법제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주 5일 근무제라는 제도가 국가적 운영에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제 판단을 즉흥적으로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조금 더 공론화 시켜 주십시오.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꼼꼼이 생각해 정리 해 주시고 법과 원칙이 곧 공권력 투입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파업사태를 협상하고 종결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흥은행의 경우 어찌면 파업이 없었더라도 매각조건은 어제 결론 난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신한지주회사가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준비한 것과 극히 유사한 수준으로 타결 된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공권력 투입을 지시했는가 하면 최근에 몇몇 노동조합들이 정부 길들이기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그런 방식에 파업은 용납 못하겠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조흥은행 문제는 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식 값도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자도 포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노사 모두에게 이익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법과 원칙을 말해놓고 왜 타협했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파업하는 사람들에게 타협하겠다고 말하면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정보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 출동시키고 장비다 꺼내놓고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확일적으로 생각할게 아닙니다. 내용을 잘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게 법의 감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얘기할 때 특권이 용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 등 구조적인 조직이 아니면 그때그때 유연하게 푸는 게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조흥은행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푸는 게 좋은 것입니다.